

# 북한개발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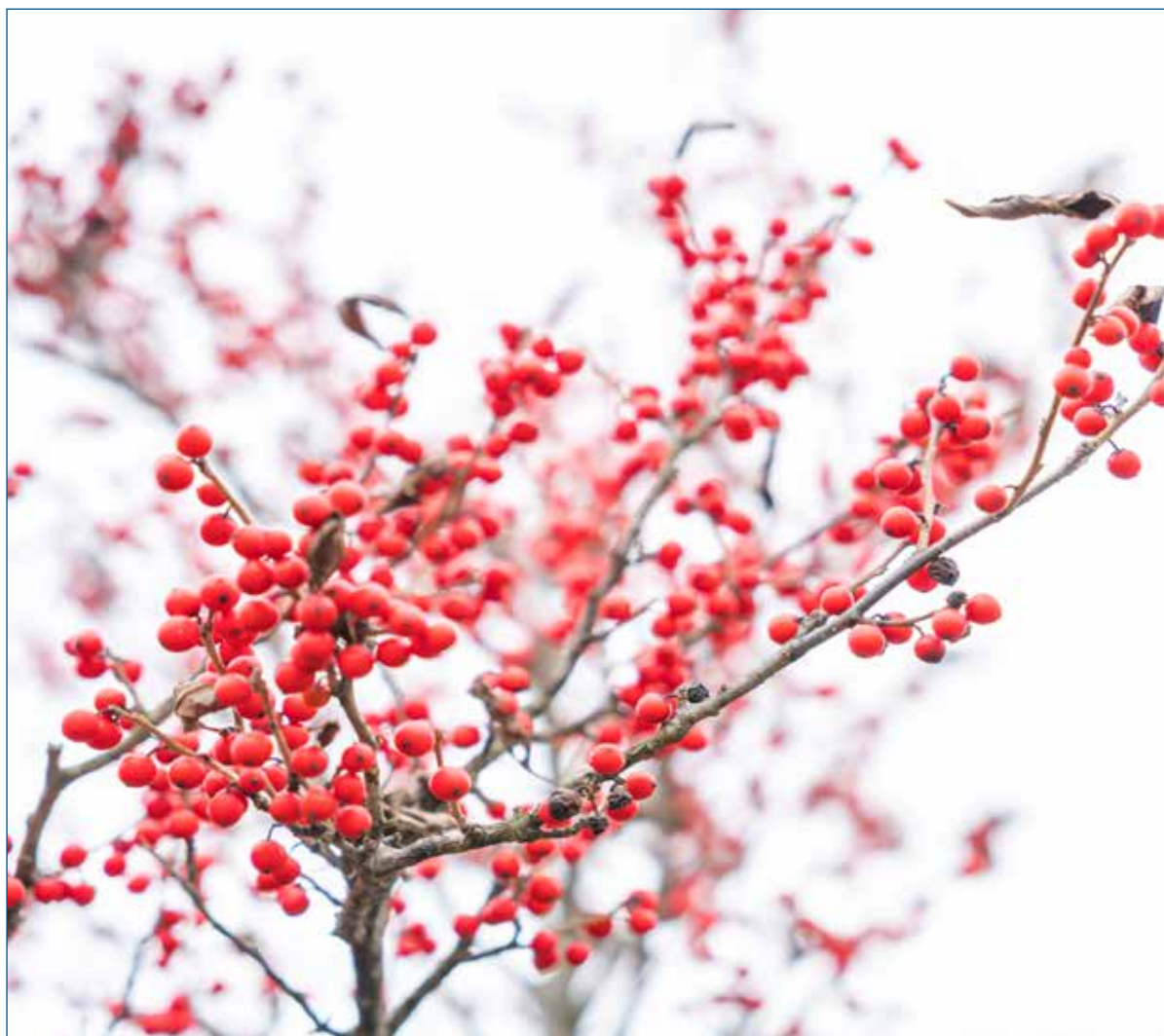
# 12

2020 December

통권 182호

| 이달의 주제 |

미 대선과 한반도 정세 전망



## 미 대선과 한반도 정세 전망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월간 **북한개발소식** 2020 December

### CONTENTS

이달의 주제 :

**미 대선과 한반도 정세 전망**

 <b>01</b> 권두칼럼 미 대선과 한반도 정세 전망	 <b>09</b> 칼럼 1· 문성묵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북한의 행보 및 한반도 정세 전망
 <b>17</b> 칼럼 2· 최규빈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b>25</b> 칼럼 3· 최경희 미국 차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 책 변화'와 북한의 대응
 <b>29</b> 탈북민 수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 21(최종화)	 <b>35</b> 북한 뉴스
	 <b>38</b> 서평 이제 그만 우릴 구해주시라요
	 <b>40</b> 북한 기도 제목

미국의 59번째 대선이 마무리되었다. 아직까지 논란이 존재하  
기는 하지만 조 바이든(Joe Biden)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취임이  
확실시되고 있다. 민주당 바이든 정권의 출범으로 미국의 외교 정  
책 전반에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한미관계와 북미관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북한 선교 현장의 상황을 진단, 예측함에 있어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정치 외교 정세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가들  
간의 관계 변화가 자연스럽게 각 국가의 대내외 정책 변화로 이어지  
고, 이는 실제 현장의 사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  
다. 이번 글에서는 미 대선으로 인해 변화할 미국의 대 한반도 외교  
정책과 그 영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 과거 북미 관계 복기

새롭게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방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전  
미국의 대북정책을 돌아켜보자. 바이든 당선자가 부통령으로 재  
임했던 오바마 정권에서는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 개념으로 재  
접근했다. 즉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전에는 일정 수준의 봉쇄를  
유지하면서 대화나 협상에는 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미국 재향군인의 날인 11일(현지 시각)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6·25전쟁 참전기념비 앞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추모하고 있다. 당선인으로서 첫 외부 공식 일정이다. (AP연합뉴스)〉

이 핵 개발을 협상의 카드로 쓸 수 없게 되고, 오히려 이로 인한 봉쇄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어느 시점에 도달해서는 북한이 붕괴하거나 적어도

핵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기대와 계산에 따른 행동이었다. 그렇지만 북한은 경제 봉쇄에도 아랑곳없이 핵능력을 발전시켰다. 결국 전략적 인내 정책은 2016년 4차 핵실험을 기점으로 사실상 북한의 핵 개발을 방지했다는 비판을 듣게 된다.

트럼프 정권에서 북미 관계는 급격한 변화를 맞았다. 트럼프 정부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폐기하고 대북 압박정책을 추진했다.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군사 옵션도 거론했다. 북한은 이에 질세라 강하게 반발하였다. 양국 정상 간에도 험악한 말이 오고 갔고 실제 군사 행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한반도의 위기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2018년을 기점으로 상황은 급변했다. 북한은 핵을 대화의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진전된 반응을 보였고, 미국도 핵 폐기 전 대화 불가 입장에서 물러서면서 사상 최초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대화를 통한 핵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보이는 듯했다. 그렇지만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이라는 결과를 낳으면서 이후 북미대화는 난항에 빠지게 되었다.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미중관계

바이든 당선자는 오바마 정권 당시 부통령으로 재임했었던 만

큼 북한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일정부분 이어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 고립주의적인 외교에서 벗어나 동맹을 중시하고 다자외교를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미 있게 볼 자료 중 하나는 조 바이든 당선자가 올해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기고문이다.<sup>1</sup> 이 글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대외적으로는 동맹의 회복 및 강화를 통해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훼손된 국내적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일방주의, 고립주의적 외교 행보 대신 동맹을 중시하는 다자외교 틀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동맹과 중국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비핵화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의 일대일 협상을 중시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동맹 외에도 중국의 역할을 언급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 대선 TV 토론 당시에도 바이든은 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미중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중국 역할론'의 언급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로서는 새로운 미 행정부에서의 미중관계도 트럼프 때와 마찬가지로 개선보다는 악화에 무게를 실린다.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기존 미중갈등의 주요 내용이었던 무역, 과학기술, 군사정책 분야에 더해 민주당의 기본 가치인 인권문제(신장위구르, 티베트, 홍콩, 타이완 등)와 중국종교문제가 다시 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즉 대중국 압박 범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대(對)중국 봉쇄망이 경제에서 안보로 확대되고, 동맹국에 대

1 Joseph R. Biden Jr. "Why America Must Lead Again: Rescuing US Foreign Policy after Trump." Foreign Affairs 99 (2020).



한 동참 압박도 대단히 거세게 요구할 것이라 전망했다.<sup>2</sup>

이런 맥락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의 최초 공식 일정이 필라델피아의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미국 내에서 한국 전쟁을 “잊혀진 전쟁 (Forgotten War)”로 불릴 만큼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번영에 있어 린치핀(linchpin·핵심축)”이라고 언급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중요성과 한·미동맹의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중국 견제에 한국이 동참하라고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조 바이든 당선자와 미 민주당의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인식도 북미간의 향후 대화와 협상 전망을 어둡게 보는 이유 중 하나이다. 조 바이든 당선자는 대선 TV 토론회 당시 “김정은은 ‘좋은 친구’가 아닌 폭력배(thug)”라고 언급하기도 했고, 지난 2월 NYT와 인터뷰에서는 “트럼프처럼 무의미한 프로젝트를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닌,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실제전략의 일환으로 김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 지도자에 대한 불신과 함께 대화의 여지를 남겨는 놓겠지만 트럼프 때와 같은 전향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예상되는 미중 갈등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북핵 문제를 중국을 포함한 다자적 접근을 시도하겠다는 조 바이든 당선자의 정책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북미 관계가 그리 쉽게 흘러가지 않으리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했을 때 꼭 부정적 전망을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트럼프와 김정은도 험악한 언사를 주고받았고 군사 행동까지 거론되었지만 이후 북미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대화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다. 세종연구소 우정엽 미국연구센터장은 “결국,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북한 정책도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협상을 하겠다고 할 경우, 바이든이 김정은에 대해 무슨 단어를 사용했건, 미국에 대북 라인이 갖춰지지 않았건, 미국은 어떻게든 협상을 이끌어 낼 팀을 만들어 보낼 것이다. 그렇게 쓸 수 있는 인재의 풀은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 보다 훨씬 많다고 볼 수 있다.”<sup>3</sup>고 전망했다.

### 남북한의 행보는?

그렇다면 북한은 향후 어떤 입장을 보일까? 일각에서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기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아무래도 정상회담을 가지기도 했고, 이후에도 정상 간의 친분을 과시해왔던 만큼 추후의 외교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 입장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던 특별히 다르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있으며, 내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통해 발표할 새로운 5개년 계획 및 국가전략은 북미대화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제재를 상수로 놓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번 미 대선 이후 혼란을 지켜보면서 미국이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합의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이행할지에 대해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sup>4</sup> 북한의 상황판단이 위 분석과 유사하다면 미국과의 대화에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2 조진구 외, “미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 전망”, IFES 브리프 2020-27 (2020),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p. 21.

3 우정엽, “2020 미국의 선택②: 북미관계”, 세종논평 2020-26 (2020.11.11), 세종연구소, p. 2.

4 조진구 외, “미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 전망”, p. 15.



〈11월 21일자 이코노미스트지 표지. 미국의 대중국 정책과 관련된 주요 동맹 국가들을 형상화 한 이미지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이 최근 북중관계를 연일 과시해온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지난 10월 2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인민지원군의 조선전선 참전 70돌을 맞아 평안남도 회창군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능을 참배했다. 김 위원장의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능 참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북한의 적극적 친중 행보는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선택한 태도 변화는 아닐까 하는 추측을 낳게 한다. 이면의 의도는 속단할 수 없지만, 북한과 중국의 밀월 관계가 더 강화되고 북한의 중국의존이 더 심

화되는 것은 북핵문제 해결에도, 북미 및 남북관계 개선에도 그리 긍정적인 현상은 아니다.

한국의 입장은 복잡하다. 먼저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바이든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변함없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이고,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동맹국과의 지속적이고 조율된 외교적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북 포용, 제재 완화 그리고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현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는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게다가 동맹을 통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행보가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위치 선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대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란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 외교적 난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내고 미중 사이에서 실리를 취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선교에 미칠 영향?

이러한 한반도 정세가 앞으로의 선교환경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까? 현 시점에서는 긍정적인 가능성, 또 부정적인 가능성 모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긍정적인 가능성들을 생각해보자.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외교적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했을 경우를 가정해볼 수 있다. 한중 관계 개선으로 중국에서 사드 배치 논란 사태 이후 계속되어 왔던 한국인들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완화되고 한국인과 한국기업의 활동을 좀 더 용인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선교사들의 거취와 관련된 긴장을 다소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북중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속에서 새로운 선교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인권 관련 압박은 중국과 북한 모두 반발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 이슈가 부각되지 않도록 완화적 자세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즉 탈북자 강제송환이나 각종 고문 및 구금시설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게 되고, 이에 따라 인권 침해가 감소할 수 있다.

반면 부정적인 시나리오로는 한국이 미중 갈등 속에서 적절한 입지를 점하지 못하고 양측 모두에게 시달리는 상황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과거 사드 사태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인의 중국내 활동은 계속 심하게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국의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한 반발로 북중국경지역을 포함한 민감 지역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의 중국의존이 더욱 심화되고 미국이나 한국과의 협상은 지지부진하게 흘러간다면 북핵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뿐 아니라 북중 밀월 관계 강화에 따른 적극적인 중국 내 탈북자 단속 및 강제송환도 우려된다.

이러한 긍정적, 부정적 가능성들은 한쪽만 나타나기 보다는 혼

재되거나 동시에 작용할 여지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국 정상들 간의 회담이나 방문, 그리고 과거 사드 배치와 같이 군사 외교적 사건들이 미칠 파장을 추적하면서 그에 따른 영향을 선행적으로 분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이 더욱 간절한 시간인 만큼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선교 현장을 위한 기도 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특히 각국의 의사결정자들을 위한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 정치적 호불호를 잠시 내려놓고 위정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판단력과 지혜를 가지도록 기도하자. 또한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의 정세가 평화와 안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정세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의 바람은 앞으로의 정세가 아무쪼록 분쟁이 아닌 평화의 길로, 그리고 더 많은 복음의 기회가 발전되는 것이다. 선교는 인간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이기에 더욱 무릎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주님의 지혜와 경륜이 한반도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지고, 북한의 형제자매들을 향해 열어주시는 기회를 불순종과 게으름으로 놓치지 않도록 깨어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되길 소망한다. 

##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북한의 행보 및 한반도 정세 전망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다.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면서<sup>1</sup>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전례 없는 트럼프의 불복선언과 각종 소송 전개로 인해 법적으로는 당선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대로라면 2021년 1월 20일 바이든이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다. 그는 트럼프가 추구하던 미국 우선주의로부터 대부분의 영역에서 정책 뒤집기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내심 트럼프의 당선을 기대했던(?) 김정은 위원장(이하 김정은)도 실망하고 변화되는 환경에 어떻게 대처할지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향후 북한의 행보와 이것이 미칠 한반도의 정세를 전망하고 교회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고찰해 보려고 한다.

<sup>1</sup> 바이든,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텃밭인 조지아에서도 이겨 선거인단 총 306명 확보, 4년 전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2016년에는 트럼프 306명, 힐러리 232명을 확보한 바 있다. (연합뉴스 11월 14일자 기사 참조)

## 김정은의 기대와 다른 미 대선 결과

김정은은 트럼프와 바이든 둘 중에 누가 당선되기를 바라고 있었을까? 정확하게 그 속내를 확인할 수 없기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북한이 보여준 행태를 본다면 트럼프를 내심 원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트럼프와 세 차례 만난 김정은은 비록 자기가 원했던 결과를 모두 얻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가 되어야 앞으로 직접 협상의 재개는 물론, 한번 해 볼만하다는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트럼프도 김정은과의 친밀한 관계를 자신의 대북정책의 성과로 늘 과시해 왔고, 최근 워터게이트 특종기자인 우드워드의 신간에서도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 친서가 25차례나 오갔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 김정은은 2019년 2월말 하노이 노딜로 큰 충격을 받은 이후 그해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을 향해 연말 시한을 예고하고 쉼법의 변화를 협박했다. 미국이 이에 호응하지 않고 연말이 지나자, 금년도 당 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해 미국에게 ‘충격적인 행동’과 함께 ‘새로운 전략무기를 곧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10월 10일이 되어서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했고, 실제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은 하지 않았다. 이는 적어도 트럼프의 대선 전선에서 궤방을 놓지 않겠다는 속셈이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1차 임기 내 이루지 못했던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염두에 두고 빠른 시일내 정상회담을 열어 매듭을 지으려 시도할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아울러 재선의 부담을 떠트림프는 완전한 비핵화는 아니더라도 북핵 문제에서 일정한 진전만 이루어 업적을 이루려 할 것으로 예상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세 차례의 만남과 수시로 교환한 친서를 통해 서로를 잘 안다는 것도 협상에 있어 유리하다는 계산도 있었을 것이다. 이뿐 아니라 트럼프 측 관리들도 그동안 여러 차례 만나 협상을

했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알고 익숙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는 김정은의 요구를 수용해 2018년 한미연합연습의 일방적으로 중단을 결정했다. 아울러 한미연합연습이나 주한미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에 한미동맹을 이간시키는 호기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달라질까?

바이든은 북한에 대해 트럼프와는 매우 다른 입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트럼프가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을 정면 비판한다. 김정은을 ‘불량배’, ‘독재자’라 칭하면서 트럼프가 그를 만난 것은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모호한 개념에 합의했지만,<sup>2</sup> 바이든은 명확하게 ‘북한의 비핵화’라고 목표를 한정했다. 북한의 용어 혼란전술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 능력 축소를 전제로 만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북핵 협상의 접근법 또한 다르다. 트럼프는 자신이 직접 나서 성과를 과시하려는 하향(top down) 방식을 선호했지만, 바이든은 상향(bottom up) 방식을 추구할 것이다. 즉, 실무협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개념과 구체적 이행방안(로드맵)을 합의하고 진정성을 검증한 후, 정상 간 만나는 방식이다.

바이든의 관심도 트럼프와는 다르다. 무엇보다 인권을 강조한다. 그는 2004년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 통과를 주도했다. 민주당은 정강정책에 북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지하고 북한 정권이

2 북한은 이에 대해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주장한다. 북한의 핵문제 뿐 아니라 미국이 대한민국에 제공하는 “핵우산과 확장억제로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한미동맹을 파기하라”는 것과 같다.





〈지난 10월 22일 열린 미 대선 토론회에서 바이든 당선인(당시 후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합법성을 부여해줬다"면서 김 위원장을 '폭력배'라고 언급했다. 그는 핵능력 축소에 동의한다면 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유럽을 침공하기 전에 우리는 히틀러와 좋은 관계였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비꼬기도 했다.〉

끔찍한 인권 유린행위를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바이든은 트럼프가 김정은을 세 차례나 만나면서도 북한 인권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무엇보다 김정은으로서 결코 쉬운 것은 바이든이 한미동맹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입장에서 동맹에

대해서도 비용 부담 증가를 압박했다. 한국을 향해서는 부자나라인 한국을 우리가 왜 지켜줘야 하느냐면서 방위비분담의 대폭 인상을 압박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주한미군도 철수하고 싶다는 의지를 자주 표명했다. 이뿐 아니라 한미연합연습에 대해서도 돈이 많이 든다. 미친 짓이라면서 북핵 협상의 여건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중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바이든은 11월 13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미동맹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linchpin)임을 강조하면서 안보공약을 재확인했다. 한미동맹의 가치를 매우 중시한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동맹의 복원 차원에서 중단되었던 한미연합연습의 재개를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바이든은 지한(知韓)파로서 한반도 문제를 잘 아는 지도자이다. 그는 상원의원 40여 년의 관록과 함께 외교위원장을 3회나 했고, 8년간 부통령으로서 외교안보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김정은이 트럼프를 대하는 것처럼 녹록한 상대가 아니라는 점도 결코 무시할 것이다.

### 북한은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미 대선이 끝났지만 북한의 반응은 조용하다. 과거 오바마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정 직후 보도했던 것과는 다른

행태이다. 물론, 트럼프가 불복을 했고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자는 뜻일 수도 있지만, 바이든의 당선이 못마땅하다고 느끼는 반증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김정은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도발일까 아니면 협상일까? 과거 북한이 보여준 패턴을 보면 미국의 정권 교체 시기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도발을 통해 관심을 높이고 협상의 몸값을 올리려 해왔다. 이번에도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무엇보다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동일한 형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바이든에게는 국민통합과 코로나 극복, 경제문제 등 산적한 현안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대북문제는 그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다. 이에 초조한 북한이 자기들에게 관심을 돌리도록 유도하기 위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제한점도 있다. 우선, 북한 내부 상황이다. 지금 북한은 제재와 코로나, 그리고 대규모 수해로 인한 3중고에 처해있다. 2016년 6차 당대회시 수립한 5개년 경제계획의 실패를 인정한 북한은 8차 당대회를 내년 1월 개최할 예정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놓아야 하는 김정은 입장에서 전략도발을 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고, 북한이 기대는 중국도 이를 막아주기에는 버거울 수 있다.

그렇다면, 김정은으로서는 내년 초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대북 정책의 방향을 지켜보면서, 미국을 향해 대화의 가능성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이 핵 역량의 축소를 대화의 전제로 천명한 만큼 자기들이 이미 하노이에서 제시한바, 핵 역량의 축소를 전제로 회담 개최를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sup>3</sup> 물론, 이 경우에도 도발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도발의 분기점은 내년

3 하노이회담에서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의 폐기를 전제로 2016년 이후 유엔의 대북제재를 해제해 줄 것을 제의한 바 있다.



3월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한미는 연합연습의 재개를 추진할 것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과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느슨해진 연합억제력 제고와 동맹 강화 목적이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북한으로서는 좌시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도발의 수위와 강도를 어떻게 선택할지 고심할 것이다. 지난 10월 10일 선보인 다탄두 ICBM 또는 SLBM 발사시험 등 전략 도발이나, 아니면 고체연료를 사용한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 발사 등 수위를 좀 낮출 것이냐를 두고 쟁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 한반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바이든의 당선은 대한민국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를 불러올 우려도 있다. 동맹의 복원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지연되어 온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조기타결을 기대할 수 있다. 한미연합연습의 재개로 동맹의 강화와 연합억제력을 제고함으로써 안보 면에서 기회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동맹의 강화로 북한이 반발하면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한미 간 갈등이 불거질 우려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와 손을 잡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미간 대화를 하루빨리 재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바이든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 트럼프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한미연합연습의 재개와 동맹의 강화를 지향하는 바이든 정부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한미연합연습은 북한을 자극하고 북핵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이 또한 갈등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 북한 인권문제도 마찬가지다. 그

동안 북한 눈치를 보면서 인권문제에 눈감아 왔던 우리 정부로서는 이 또한 도전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더 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왔다. 경제 분야뿐 아니라 남중국해 문제, 대만 및 홍콩 문제 등 전방위 압박을 이어왔다. 최근 미국은 일본, 인도, 호주와 함께 쿼드(The Quad)<sup>4</sup>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대중 압박은 바이든 행정부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자협력을 강조하는 바이든은 국제사회와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려 할 것이고 동맹인 한국에 대해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그동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인식하에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모호한 태도를 보여왔던 우리 정부로서는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애매한 우리의 외교정책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일본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정부로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갈등을 빚을 우려도 있다.




〈2013년 12월 부통령 자격으로 방한했던 조 바이든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바이든 당시 부통령은 방한 당시 박 대통령에게 “미국의 반대편에 베풀하는 것이 좋은 베풀이었던 적이 없었다”며 ‘중국에 베풀’에 대한 우회적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 교회의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 : 기회를 확대하고 갈등은 최소화하도록

첫째, 한미가 공동인식과 공조를 강화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4 2007년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처음 연 안보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의 맨 앞부분만 따서 만든 말이다. 9년간 중단되었다가 2017년 부활했다. 사실상 중국 견제에 목적이 있다. 이는 향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다자안보기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4국은 2020년 10월 4일 쿼드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목표로 코로나 19 사태 이후 경제회복 등 역내 다양한 도전에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4국은 이 협력체에 한국과 뉴질랜드 등을 참여시키는 ‘쿼드 플러스’도 구상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경제 용어사전 참조)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 한미동맹 강화라는 점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한국 정부가 북한이나 중국을 의식한 기존 입장을 고집한다면 오히려 바이든 정부와 갈등이 촉발될 우려도 있다. 둘째, 북한 김정은이 변화상황을 직시하고 도발보다는 대화로 방향을 선택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특히 핵 보유를 고집한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핵을 내려놓고 대화에 응하여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셋째,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제고되어 북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내 종교의 자유 등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북한의 문을 여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야만 북음의 씨앗도 북한에 뿌려질 수 있다.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최규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미국 대선이 마무리 되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민주당의 조 바이든(Joe Biden)은 미국 역사 상 역대 최다 득표의 당선인,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 될 예정이다. 버락 오바마(Barack Obama)는 2008년에 6,940만표를 받아 당선이 되었으나 바이든은 7,867만표로 그 기록을 가뿐하게 갈아치웠다(11월 16일 기준). 트럼프는 7,311만표를 얻어 미국 대선 역사상 최다 득표를 받고도 패배한 대통령이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은 적극적인 사전 투표 참여를 이끌어 냈고, 전체 유권자의 66.4%가 투표함으로 120년 만의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1942년 11월 20일 생인 바이든은 78세로 취임 시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 된다. 카멜라 해리스(Kamala Harris)의 경우 미국 역사 상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 된다. 어느 때 보다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된 2020 미국 대선이 마무리 되면서 바이든-해리스 리더십은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국제적 관심과 각종 기록을 쏟아낸 이번 대선은 여러 측면에서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당선인 바이든과 대통령 트럼프 지지자 간의 통합 과제이다. 비록 선거에는 패배하였지만 트럼프는 47.3%의 득표를 얻었고 상당한 지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펜실베이니아(Biden 49.9% vs Trump 48.9%), 미

시건(Biden 50.5% vs Trump 47.9%), 위스콘신(Biden 49.4% vs Trump 48.8%) 등 ‘러스트벨트’(쇠락한 북동부 공업지대) 지역에서 두 후보는 치열한 접전을 벌였고 최종 득표율 격차도 얼마 나지 않았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쉽게 선거인단 확보에 실패한 것이다. 결국 0.3% 차이로 바이든이 앞섰던 최대 경합주인 조지아(Biden 49.5% vs Trump 49.2%)는 재검표가 결정되었다. CNN의 출구 조사에 의하면 백인들의 57%가 트럼프를 선택했고, 45-64는 49%, 65세 이상은 51%가 트럼프를 위해 표를 던졌다.<sup>1</sup> 2016년 약 13%의 흑인 남성과 32%의 라틴계 남성이 트럼프에게 투표 했지만 2020년 그 비율은 19%와 36%로 각각 증가 하였다.<sup>2</sup> 바이든 당선인이 2021년 1월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면 극명하게 나뉘진 지지층 간의 불신과 반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일 될 것이다.

둘째, 이번 선거는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의 위기이자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민주주의 제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를 두고 미국은 분열과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트럼프는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가 사기이며 불법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연일 맹공을 펼치고 있다. 역대 미국이 보여주었던 결과에 승복하는 성숙한 태도가 트럼프에게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에도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 현재 트럼프 측에서 낸 주요 개표 소송은 대부분 법원에서 기각되고 있다. 하지만 개표 소송의 결과에 관계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대선 불복을 충동하는 인상마저 보여 줌으로서 내부의 분열을 심화시키

고 민주주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트럼프가 선거 불복 입장을 고수하고 러스트벨트 등에서 소송을 밀어붙일 경우 적지 않은 내부적인 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

셋째, 바이든 행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국내 현안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코로나19 위기가 더욱 악화됨에 따라 경제위기와 실업난이 가중되고 있다.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11월 12일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6만 3,405명, 사망자 1,171명, 누적 확진자는 1,063만 7,400명, 누적 사망자는 24만 2,860명이다.<sup>3</sup> 11월 4일 10만 7,913명이 확진으로 판명된 이후 연일 10만명 넘는 확진이 속출하고 있고 11월 중순 하루에 1천명 이상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원회 출범 이후 가장 먼저 공개한 인선이 코로나19를 대처하기 위한 전문가 테스크포스(TF) 였다는 점은 미국이 건강안보의 위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지를 보여준다. 바이든-해리스 인수위원회는 실제 코로나19, 경제회복, 인종평등, 기후변화를 최우선과제로 제시하였다.<sup>4</sup> 퓨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트럼프와 바이든 지지자의 정책적 우선순위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지만, 두 진영의 대다수(트럼프 지지자 84%, 바이든 지지자 66%)는 경제가 대선 투표에 있어 최우선 사항으로 나타났다.<sup>5</sup> 이번 대선은 부의 불평등, 인종, 보건



〈러스트벨트(rust belt)는 미국 북동부 오대호 인근 과거 공업지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공장 설비가 쇠락해 녹(rust)이 슬게 된 지대를 뜻한다. 한 때 세계 최대 제조업 기지였으나 침체에 빠진 이 지역은 이번 대선 최대 격전지였다 (사진:KBS 캡처)〉

1 BBC, "US Election 2020: Results and exit poll in maps and charts," November 4, 2020, [https://www.bbc.com/news/election-us-2020-54783016] (접속: 2020.11.12.).

2 FOX, "Unexpected Trump Campaign supporters: Why some minorities chose to re-elect the president," November 12, 2020, [https://wgxa.tv/news/election/unexpected-supporters-for-the-trump-campaign] (접속: 2020.11.10.).

3 The New York Times, "Covid in the U.S.: Latest Map and Case Count,"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0/us/coronavirus-us-cases.html] November 13, 2020, (접속: 2020.11.13.).

4 The Economic Times, "COVID-19, economic recovery, racial equality and climate change top priorities for Biden, Harris," November 8, 2020,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international/world-news/covid-19-economic-recovery-racial-equality-and-climate-change-top-priorities-for-biden-harris/article-show/79117191.cms] (접속: 2020.11.13.).

5 Pew Research Center, "2020 election reveals two broad voting coalitions fundamentally at odds," November 6, 2020,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20/11/06/2020-election-reveals-two-broad-voting-coalitions-fundamentally-at-odds/] (접속: 2020.11.13.).



의료(health care), 교육 문제 등에 있어 미국 사회가 확연히 나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선으로 인해 분열된 미국을 화합시키는 것과 함께 당면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당면한 국내문제 극복과 함께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고 초강대국의 미국의 지위와 영향력을 강화시켜야 하는 도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실제 파리기후협약 복귀는 바이든 후보의 공식 공약이었고 바이든 당선인은 기후변화를 ‘인류의 존재적 위협’임을 명시하고 취임 첫날까지 파리기후협약 복귀를 선언했다.<sup>6</sup> 바이든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폐기를 약속하고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고 선언한다. 관건은 미국이 ‘어떻게’ 돌아오느냐 이다. 이런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의 대외환경 변화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은 대외정책 방향에 있어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선 바이든의 미국은 동맹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sup>7</sup>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의 입장에서 동맹과의 관계에서도 철저히 경제적이고 이해타산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공조하고 북한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한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4월과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 했으며 이를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연계하는 태도를 보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들에 보다 건설적이고 확고한 접근을 중시한다는 것은

미국이 동맹들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국제문제에 적극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변화는 한국에게 기회일 수 있다. 2020년 4월 한미 방위비 협상 합의가 실무선에 거의 이루어졌음에도 최종 타결이 되지 못한 것은 한국 측의 더 많은 분담을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요인이 컸다. 한미동맹을 일종의 흥정으로 여긴 트럼프의 태도는 한국인의 대미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문제를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처리하는 가는 향후 한미동맹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최근 한국 언론에 보낸 기고문에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우리의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는,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sup>8</sup> 바이든이 공언한 동맹 중시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트럼프 때와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은 미중관계 뿐 아니라 한미동맹 더 나아가서는 한중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상원 6선 시절 중 외교위원장을 세 번 이나 맡을 정도로 국제문제에 관심을 보여 왔고, 오바마 대통령 시절 부통령을 역임 하면서 외교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목되는 점은 바이든 역시 미중 간의 ‘전략 경쟁(strategic competition)’을 인정하고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 정치 모델 홍보, 첨단기술에 투자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는 점이다.<sup>9</sup> 미국의 민주당의 대중인식이 공화당 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이지만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미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진핑 주석에 대한 호감도

6 Joe Biden, “Today, the Trump Administration officially left the Paris Climate Agreement. And in exactly 77 days, a Biden Administration will rejoin it.” Twitter, November 5, 2020.

7 Richard Haass, “Repairing the World: The Imperative—and Limits—of a Post-Trump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November 9, 2020.

8 연합뉴스, ““한국은 강력한 동맹”...바이든 미 대선후보 연합뉴스 기고문,” 2020.10.30. [https://www.yna.co.kr/view/AKR20201030029800071] (접속: 2020.11.15.).

9 Joseph R Biden, “Why America Must Lead Again,” Foreign Affairs, March/April 2020.



〈2013년 12월 소녀와 함께 DMZ를 방문했던 조 바이든 당선인 (당시 부통령). 바이든 당선인은 미 정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지한파(知韓派)'로 알려져 있다〉

역시 매우 낮은 상황이다.<sup>10</sup> 바이든은 중국의 기술과 지적재산권 침해와 탈취, 인권 유린 등 중국의 비규범적 행동에 미국은 보다 강경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동맹들과의 연합

전선을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 한 바 있다.<sup>11</sup> 빅데이터,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패권을 둘러싼 미중간의 경쟁은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 더욱 치열해 질 것이다. 한국은 대중 견제의 목적을 보여주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4자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에 동참을 요구 받을 수 있다. 만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협력을 위해 대중 견제와 압박이 가시화 된다면 한국의 외교적 입장은 난처해질 가능성이 크다. 다른 한편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시절과 달리 기후변화 등 인류 보편적 의제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원하는 만큼 한국은 국제보건, 환경보호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더욱 커질 것이다. 즉 군사안보 영역 뿐 아니라 비전통안보 영역에서도 한미 양국의 협력은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접근 방식에 있어서도 외교를 중시하고 동맹들과의 공동 관여정책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통화에서 북핵문제에 있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한 만큼<sup>12</sup> 향후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의 협력과 공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확산과 핵안보


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있어 최우선 순위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 및 대한반도 정책이 구체화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본적으로 협상을 중시 하되 정상회담을 통해 준비되지 않은 거래(deal)는 지양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은 10월 22일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폭력배(thug)'로 묘사하고,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하고 핵능력을 축소시킨다는 조건 하에서 만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핵협상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능력을 더욱 강화하였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핵협상을 재개하되 이전과 같이 탑다운(top-down) 방식 보다 바텀업(bottom-up) 방식을 선호하고 정상회담을 통한 접근 보다는 실무협상을 통한 과정을 중시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더욱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및 일본과의 공조를 유지함과 동시에 중국으로 하여금 유엔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 할 수 있다. 바이든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 이란과의 핵 협상을 직접 다루어본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외교를 통한 협상을 중시할 것이다. 바이든은 군사력은 마지막 옵션이어야 하며 미국의 핵심 이익(vital interests)을 방어하는 데에서만 사용하되 그 목적이 명확하고, 성취가능하며, 자국민의 동의 하에 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sup>13</sup>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대화의 노력은 지속하되 북한의 행동 변경을 위해 경제지원 및 경제제재를 포함하는 경제적 국가 통치술(Economic statecraft)을 운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재 북한은 공식적으로 미 대선 결과에 대한 논평이나 공식적인 입장을 내 놓지 않고 있다. 북한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2009년 취임 이후 '핵무기 없는 세상'

10 Pew Research Center, "U.S. Views of China Increasingly Negative Amid Coronavirus Outbreak," April 21, 2020.

11 ibid.

12 청와대 브리핑, 2020.11.12.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9476] (접속: 2020.11.16.).

13 Joseph R Biden, "Why America Must Lead Again,".

을 천명하고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중시하겠다는 입장에도 로켓 발사 및 핵실험을 강행한 이력이 있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설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비핵화 협상의 내용들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기에 당분간은 관망하는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이 직면한 대내외적 상황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북한은 코로나19 및 수해 뿐 아니라 유엔안보리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민생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은 2016년에 계획했던 경제발전 목표가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라고 인정한 바 있다.<sup>14</sup> 이런 점에서 북한은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도 내부 결속을 다지고 경제발전 및 핵무력 건설 전략을 점검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북한의 신중 모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한 메시지에 따라 언제든 공세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식 출범 및 대북정책 검토의 시간과 김정은 위원장의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앞두고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계획을 준비하는 시간 속에서 면밀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만일 북한이 내부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재개와 실질적인 협상 진척, 북한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창의적이고 대담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4 김정은 위원장은 8월 19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 드는 데 맞게 경제 사업을 개선하지 못해 계획했던 국가 경제의 장성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 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고 평가함. 조선일보, 2020.8.2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1/2020082100128.html] (접속: 2020.11.16.).

## 미국 차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변화’와 북한의 대응

최경희 ((사)샌드연구소 대표)

지난 11월 3일(미국 현지 시각)치러진 미국 대선 결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수를 확보하고 승리를 선언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미국이 대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코로나 변수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코로나 위협에 대한 인식이 공화당 유권자들에 비해 높은 민주당 유권자들이 우편투표를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현 단계에서 선거 결과를 최종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미국 내 여론과 국제사회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바이든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변화와 북한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외교·안보 분야의 한미 간 현안은 물론 대북 정책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을 대대적으로 수정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동맹을 경시한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아시아와 유럽의 전통적 동맹과 관계 회복 및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변화를 시사한다.





〈지난 2001년 8월, 당시 미 상원 외교위원장 자격으로 방한하여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난 바이든 당선인. 방한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넥타이를 바꿔 맨 일화가 알려져 있다. (참고: 조선일보)〉

우선 바이든 행정부 임기 동안 한미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후보는 미국 내 최고의 ‘지한파’로 꼽힌다. 상원의원 시절 의정활동 대부분을 외교 분야에서 일했고, 외교위원장으로 오래 맡았다. 1980년대 미국에서 망명하던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처음 인연을 맺고 이후 한국

대통령 대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우정을 쌓아왔다. 바이든은 한미 관계 주요 현안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대폭 증액 요구를 ‘폭력단의 갈취행위’라며 비판한바 있다.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한미동맹의 가치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미경중(安美經中)정책을 유지하는 한국에 대해 한미동맹의 편에 확실하게 설 것을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

대북문제에 있어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정상회담 등 폭넓은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 우선 바이든은 강경한 대북관을 갖고 있다. 그의 대북관은 과거 북한과 주고받은 설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후보가 대중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독재자’라고 지칭하자 북한은 ‘지능지수 낮은 멍청이’(An Idiot With a low IQ)라고 되받았다. 또 지난해 11월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친개는 한시바삐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한다’는 논평에서 바이든 후보를 가리며 ‘미친개’라고 비난했다. 이에 바이든 후보는 “살인적인 독재자 김정은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며 “나는 그들의 모욕을 영광의 훈장으로 여긴다”고 응수했다. 또 김정은에 대해 “내가 대통령이 되길 원하지 않는 독재자 리스트에 그를 추가하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바로 옆에”라고 꼬집기도 했다.

바이든은 대북정책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기조를 완전

히 뒤엎는 대전환을 예고한바 있다. 바이든은 북한 비핵화 문제는 ‘두어 번의 정상회담’으로 풀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top-down)해법보다 ‘실무수준에서 진지한 외교적 노력을 선행’하는 ‘바텀업’(bottom-up)방식을 제시했다. 바이든 후보는 9월 대선후보 토론에서 “그(트럼프)는 (김정은이란) 폭력배(thug)를 좋은 친구(good buddy)라고 부르면서 정당성을 부여했지만 현재 북한은 예전과 달리 미국 본토를 아주 쉽게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갖게 됐다”며 ‘톱다운’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실무협상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경우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오바마 행정부가 유지해온 전략적 인내를 유지하면서 과거 ‘페리 프로세스’로 북한과 협상했던 클린턴 3기 체제와 비슷한 대북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나온다. 외교안보 라인 구축 초기에는 북한에게 선(先) 비핵화를 요구하며 북한 측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겠지만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곧 바로 과거 클린턴 행정부가 취한 적극적 포용적 대북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미국의 전통 외교에서 벗어나 자기 과시와 포퓰리즘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쉽게 다룰 수 있는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대미전략의 대폭 수정을 예고한다. 내년 1월 열릴 예정인 노동당 제8차대회에서 새로운 대미외교노선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에나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진영 구성 및 정책의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북한은 이 공백기를 충분히 이용하려 들 것이다. 북한은 올해 연말까지 ‘80일 전투’를 진행하는 등 내년 1월로 예정된 8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과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움직임이 보일 가능성은 낮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 및 제재 해제가 단시일에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내년 8차당

## 신앙의 자유를 찾아 21(최종회)

●  
마리아

3개월간의 알찬 하나원 생활을 마치고 퇴소를 할 즈음 유난히 처음 중국으로 건너갔을 때가 생각이 났다. 그 때는 정말 아무 것도 없었다. 몸뚱아리만 홀로 지적 장애를 가진 시골 남자에게 팔려갔다가 간신히 탈출하고는 기독교인 조선족 아주머님의 도움으로 교회라는 곳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분들 덕분에 일자리를 구했다. 한국 사회에 첫 발을 디디는 이 순간,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으로 각종 생활가전과 필수품 등을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임대아파트도 마련되었다. 처음 강을 건넌을 때와 비교하면 정말 감사의 “할렐루야!” 소리가 절로 나올 일이다. 이렇게 부족함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참 감사드렸다.

드디어 하나원에서 떠나 나의 첫 집으로 가는 날이었다. 가슴이 벅차기도 했지만 긴장을 많이했다. 그동안 결핵 약을 계속 먹었던 터라 갑자기 이동을 하니 멀미가 심했다. 한 편으로는 하나원에서 근심걱정 없이 남이 해주는 밥을 먹고 프로그램에 맞추어 지내는 삶을 벗어나 내 손으로 모모든 것 일구어 살아내야한다는 것이 막막하기도 했다. 감사하

게도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착도우미들이 나를 반겨주었고 마침 근처에 살던 동향 출신 언니와 형부가 나를 초대하여 저녁식사를 함께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집에 혼자 들어갈 때가 되자 마음 한 켠이 너무나 무거워졌다. 무엇보다 북에 두고 온 자식들이 생각났다. 전기밥솥으로 갓 지은 따듯한 밥을 먹을 때 특히 그랬다. 더운물로 목욕을 하고 시장에서 맛난 과일을 볼 때면 자식 생각이 떠나지 않아 가슴에 사무쳤다. 나 혼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방 안에만 있다보니 온갖 생각이 다 들어 점점 우울해져만 갔다. 그 당시에는 내가 앓았던 게 우울증인지도 몰랐다. 라오스 대사관과 하나원에서부터 친해졌던 다른 새터민 친구들은 퇴소하자마자 모두 풀어놓은 송아지마냥 이곳저곳 다녔는데 나는 그럴 의욕이 없었다. 며칠동안 밖에도 안 나가고 TV도 안 보고 그저 집에 누워있기만 했다. 어느날 하나센터에서 정착 관련 상담 전화가 왔는데, 내가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집에 들어가면 문 잠그고 누워있다고만 하자 담당자가 내 상태가 심각하다며 그럴수록 바깥으로 나와야한다고 일러주었



〈페리 프로세스는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시험 발사와 금창리 핵시설 의혹에 따른 클린턴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수립을 위해 제출된 윌리엄 페리의 리포트를 지칭한다. 이 리포트에 제시된 대화와 대결, 두 가지 방안에 따라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종단을 위한 대화에 나섰고, 북한이 미국이 제시한 금창리 핵의혹시설에 대한 미국의 현장방문과 미사일 개발 모라토리엄을 받아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이행의 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2000년 공화당 부시 후보의 당선으로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다. 사진은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로이터)〉

대회를 계기로 미국의 관심을 얻기 위해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을 향한 전략도발이 새로운 제재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남한을 향해 공세를 취할 수도 있다.

북한이 외교적 고립

에서 탈피하고 생존을 모색하기 위해 전통적 우방국인 북중, 북러 관계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북중, 북러 간 상호 방위조약 체결 50주년을 맞으며 정치·군사적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북한은 워싱턴에 접근하기 위해 일본을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은 2018년 평창올림픽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국면을 평화국면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내년 도쿄 올림픽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김정은 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만남을 언급하고, 문재인 정부가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기회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도 북한 비핵화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과의 공조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자외교가 부활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감사하게도 주변에 나를 챙겨주시던 분들이 계셔서 그 기간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소개해주신 노래교실과 봉사활동 등에 얼른 나가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쾌활하고 활발한 원래 내 성격을 되찾을 수 있었다.

첫 정착 6개월동안은 지원금이 나왔지만 이후에는 경제적으로도 자립을 해야했다. 일 자리를 알아보던 연말에 때마침 하나원에서 부터 가깝게 지냈던 언니 한 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인근 지역에서 재봉일을 하는데 같이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하셨다. 나는 큰 망설임 없이 곧장 언니가 있는 곳으로 이사하고 지역자활센터에서 간단한 재봉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배운 이후에는 재단 지원금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미성 전문학원에 다녔다.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첫 발자국을 때는 설렘으로 일을 배우니 너무 즐거웠다. 우리가 만든 수공예품을 지역축제, 벚꽃축제 등 각종 행사마다 다니면서 팔았고 그 성취감에 더 신이 나서 일했다.

정착 초기 단계 때는 정말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야근도 밥 먹듯 하고 주말에도 나 혼자 나와서 일을 했다. 힘들지 않고 재밌었다. 나중에는 우연한 기회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강사 활동도 하게 되었는데,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해서 가르치는 통일 강사가 되겠다는 나의 작은 꿈도 비슷하게나마 이루었다는 생각에 가슴 벅찬 나날을 보냈다.

그렇게 분주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갑자기 가슴 쪽이 너무 답답하고 아파오기 시작하면서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었다. 병원에 갔더니 스트레스성 심장 협심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상태가 좋지 않아 당장에 수술 날짜를 잡았다. 처방받은 약을 먹으며 수술 날짜를 기다리니 그동안 나의 몸과 마음을 전혀 돌아보지 않았구나 하는 후회 섞인 깨달음이 밀려왔다. 또한 몸이 약해지니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이 생기면서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2박3일 치유집회에 대해 알게 되었고, 몸과 마음의 치유가 간절했던 나는 큰 고민 없이 참가 신청을 하였다. 처음 집회 장소에 갔더니 팀을 정해주셨고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하였는데, 성가대가 부르는 반주에 맞추어 찬양을 부르니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온갖 마음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느껴져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내내 울었다. 무엇보다 복에 두고 온 가족 생각이 많이 났다. 내가 심장병이 생긴 것도 두고 온 아이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더불어 교도소에서의 트라우마도 온전히 내 마음 한 켠에 남아있었다. 내가 너무 우니까 내 옆에 있던 분이 내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내 등을 토닥여주셨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를 해주는 그 마음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다.

예배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어 옆의 분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나와 같은 고향 출신의 탈북민이셨고 지금은 목사님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에 정말 깜짝 놀랐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주관하시는 미술심리치료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고, “그림을 그리면서 스스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다. 나는 그 때 미술 심리치료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지만 집에 가서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치유집회가 진행되는 2박3일동안 정말 찬양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다. 주님 안에서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몸도 마음도 온전한 ‘치유’의 길로 마침내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마음이 들었다. 집에 돌아와서는 탈북민 목사님이 제안하신 프로그램이 계속 떠올라 한번 방문해보기로 결정했는데, 한 번 방문해본다는 것이 이후 정식으로 14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주말마다 생전 그리지도 않던 그림을 그리며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그림을 통해 표출되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다. 미술 프로그램을 통해 점점 주님이 만드신 나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또 내가 걸어왔던 인생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었으며,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이 분야에 대하여 더 심화하여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한편, 미술치료프로그램 과정을 수강하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심장이 좋지 않은 채로 일과 공부를 병행하다보니 건강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다. 일전에 예약했던 수술 날짜가 점점 다가와 기도로 준비하는 와중에 주님은 예전에 참석했던 것과 비슷한 2박3일 치유 집회로 한 번 더 나를 인도하셨는데, 그 집회가 나에게 정말 특별했다. 집회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친해졌고, 미국에 사는 한인 교포 교인분들이 여기까지 오셔서 함께 섬기시는 것을 보고는 사는 환경과 국적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몸소 깨닫기 시작했다. 이후 예배 시간이 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성령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다. 울고 웃으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내 상태가 많이 호전된 것이다! 이후 병원에 갔더니 약물 치료로도 충분할 것 같라며 수술이 취소되었다.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몸소 경험하는 감격이 있었다.

치유의 축복에 더하여 만남의 축복도 경험하였다. 예배 이후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에 나는 북한에서의 삶과 감옥에서 루디아 선교사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언급하였는데, 이후 쉬는 시간에 어떤 자매님이 찾아오셔서 루디아 선교사님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셨다. 알고보니 이분은 중국에서 루디아





선생님과 함께 살면서 성경공부를 하고 신앙 생활을 하셨던 분이였다! 선교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을 한국에서 만났다는 사실에 감격이 차올랐고 너무 기쁘고 반가웠다. 비록 잔혹한 핍박에 수용소로 끌려가 생사를 알 수 없는 루디아 선생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그립지만, 이렇게 예기치 못한 기회에 그 분을 동일하게 알고 있는 신앙의 동지를 만난 것이 너무나 신기했다. 주님께서 루디아 선교사님을 귀하게 기억하고 계심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소망을 북돋아 주시고자 이런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같다.

두 차례의 치유 집회, 그리고 그 때 만났던 여러 축복의 관계를 통해 비단 육의 회복이 아닌 영혼의 회복을 경험했다. 이후 미술심리치료프로그램을 주관하시는 목사님을 따라 교회를 옮기면서는 기존보다 더 긴밀한 신앙 생활을 하게 되었다. 새롭게 교회를 옮긴 첫 날, 예배당에 울려 퍼진 찬송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고향 안아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주님, 집 떠난 탕자가 하나님 품에 이

제 안깁니다’ 라는 마음 속 고백을 드렸다. 그 동안의 힘들고 서럽고 고생했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찬양을 들으니 한 소절 한 소절 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다.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 앞에서 오열을 했다. 그 때 주님의 음성이 마음 속 깊이 울려퍼졌다. “마리아야, 여기 이 곳이 너희 집 따듯한 아랫목이다.” 그 때부터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교회를 정말 나의 집이자 아랫목 삼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주님은 내가 북한에 있을 때 하늘을 보면서 꼭 비행기를 타고싶다고 혼잣말로 되뇌이던 말들을 기억하셨는지, 건강이 회복되자마자 핀란드, 미국, 이집트, 일본 등 세계 각지를 여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관광과 선교지 방문이 목적이었던 여행도 있었는가 하면 내가 직접 강연을 하며 북한의 실상을 전달하는 여정도 있었다. 핀란드 현지 비포장 도로에서 장시간 이동하며 일행과 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통성 기도를 했던 일, 미국 현지 건물 복도에 진열되어 있는 기독교 박해국가 국기들 가운데 북한 국기가 가장 맨 앞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눈물을 쏟던 일, 이집트 현지 쓰레기 마을에서도 박해받는 크리스천들이 고통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간증, 그리고 일본에서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내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던 일본 현지 장로님 등 여러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비단 북한, 중국, 한국 뿐만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하나

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다. 정말 작디 작은 나를 부르셔서 세상 천지를 구경시켜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이후 나는 본격적으로 공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まずは 미술치료 전문가과정을 수강하기 시작했다. 2년의 긴 과정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도전하고픈 부푼 마음에 설레었다. 더불어 사회복지에 대하여도 정식으로 공부하고 싶어 사이버대학에 입학하였다. 처음 공부할 때에는 북한에서 사용하지 않는 외래어와 전문용어가 너무 많아 어려웠는데 그 무렵 사이버대학 탈북민 동아리를 알게 되어 학우들과 선배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미술치료 전문가 과정과 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과정을 모두 마무리하는 시점에 놓였을 때, 논문을 쓰고 실습을 시작하게 되었다. 몸도 피곤하고 학업 스트레스도 대단했지만 그 무렵 새삼스럽게 이러한 공부를 하게 되어 참 감사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배움의 기회를 통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더 나아가 이 사회에 대해 심적으로, 또 지적으로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또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사이버대학의 모든 과정을 수료했을 때 그 성취감과 뿌듯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사이버대학 종강을 앞둔 무렵, 동기들끼리 파티를 하자고 약속을 잡고 토요일 근무를 마치고 전철을 타는데 돌연 북한에서부터 연락이 왔다. 북에 계시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 어떤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한국 와서 가장 힘들었을 때를 꼽으라면 바로 이 때였던 것 같다. 약속을 취소하고 바로 방향을 바꾸어 DMZ 부근을 찾아가 엄마가 있던 북한 쪽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울었다. 남한과 북한을 가로막는 철조망이 유난히 마음이 아프게 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와서 “나의 살던 고향은” 노래를 유튜브로 틀어놓고 밤새 엄마를 생각하며 울었다.

다음날 미술치료 연구소소장님께서 나를 걱정해주시며 가고 싶은 곳이 있느냐고 물으셨다. 내가 바다를 보고 싶다고 하자 함께 바다에 가주셨다. 바닷가에 가서는 미리 준비해온 편지를 읽었다. 돌아가신 엄마께 쓰는 편지였다. 편지를 읽는데 미안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소장님은 자꾸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고맙다고 말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는 편지를 바다에 띄웠다. 그리고 함께 간 소장님과 한참을 울었다. 바다도 나를 위로해주는 느낌이었다.

이틀 후 우리 교회에서 추모예배를 함께 드렸다. 교인들뿐만 아니라 사이버대학 학우들과 방송사 작가님 등 가까운 사람들도 모



두 모여 추모식을 진행했다. 나를 위해 기도 해주는 신앙의 가족들과 함께 엄마를 생각하고 엄마를 그리는 시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특별했다. 추모식을 통해 심리적으로 엄마를 잘 떠나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으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 덕분에 내가 홀로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돌이켜보건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나의 여정은 결국 주님으로부터 시작했음을 고백한다. 주님은 북한에서 가난에 허덕이던 시골 여자에 불과했던 나를 중국으로 이끌어내시고, 그곳의 한 작은 가정교회에서 나를 만나주셨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은 한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으시고, 나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신 적이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홀로 있는 것 같을 때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셨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

으며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을 때 하늘 문을 여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주셨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싶다는 나의 소원을 마침내 이루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주님.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하나 하나 그리시고 설계하시니 나의 인생은 곧 주님의 작품임을 고백한다. 나는 앞으로도 주님이 허락하신 이 현재를 즐기며 또 미래를 향해 달려갈 것이다. 나의 모든 여정과 갈 길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매일 찬양과 말씀을 공급하시며 호흡하게 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린다. (끝) 🙏

## + 바이든, 첫 외부행보로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문 대통령과는 “한미동맹 강화 기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1월 11일(현지시간) 미국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에 헌화했다. 이날 바이든 당선인은 아내 질 바이든과 함께 한국전 참전용사 장병들을 기리는 예배에 참석했고, 참전 기념비를 찾아 약 15분간 머무르기도 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가졌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문 대통령의 승리 축하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으로서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기대를 표시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칭찬하면서 전염병

대처와 글로벌 보건 안전 구축, 글로벌 경기 회복 부양에서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북한부터 기후변화까지 공동의 다른 도전 과제에 관해서도 문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의 이날 통화는 미국우선주의와 고립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을 폐기하고 전통적 동맹 복원과 다자주의를 중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동맹국 정상과도 통화했다. (참고: 언론보도 종합) 🙏

## + WHO “북한서 코로나 의심증상자 일주일 새 805명 늘어”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자 수가 일주일 만에 805명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주간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기준으로 북한의 의심 증상자 수는 6천17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22일까지 확인한 5천368명 대비 805명 늘어난 수치다.

22일부터 29일까지 격리된 인원은 174명이다. 이로써 지난달 29일까지 격리된 누적 인원은 3만2천182명에 이른다. 실시간 유전자 증폭(RT-PCR) 방식으로 검사한 사람 수는 1만2천72명이며, 이달 5일까지 여전히 확진자는 1명도 없다고 밝

혔다.

공식적인 확진자는 여전히 '0'명이지만,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의 고삐를 한층 조이고 있다.

이달 2일 기준으로 지역 간 이동은 여전히 제한 중이며,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지난 11월 15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통해 국가비상방역체계 보강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초긴장 상태를 계속 견지하며 완벽한 봉쇄장벽을 구축하고 비상방역전을 보다 강도 높이 벌여나갈 (것)”을 주문했다. (참고: 연합뉴스, 11월 17일) 📰

## + 통일부 “북한, 당분간 국경봉쇄 풀지 않을 듯”

통일부는 11월 17일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초부터 취해온 국경 봉쇄 조치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최근 북중 국경 봉쇄조치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일부 언론에서 11월 초에 북중 국경 봉쇄가 풀린다고 전하는 등 여러 설들이 있었으나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포착된 것

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북한이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어 방역 강화 조치를 취했다”면서 “북한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동절기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해 방역을 강화하는 것으로 비춰볼 때, 당분간은 북한도 국경 봉쇄를 풀지는 않을 걸로 보인다”고 했다. (참고: 연합뉴스, 11월 17일) 📰

## + IAEA “북한 핵 활동 여전히 심각한 우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의 핵 활동을 우려하고 북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11월 11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영상 보고를 통해 “북한의 핵 활동은 여전히 심각한 우려의 근거가 되고 있다”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명백히 위배돼 무척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고 IAEA가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는 위성 사진을 비롯한 공개 정보를 활용해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감시를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위해 IAEA

에 협력하고 IAEA 사찰단의 부재 기간에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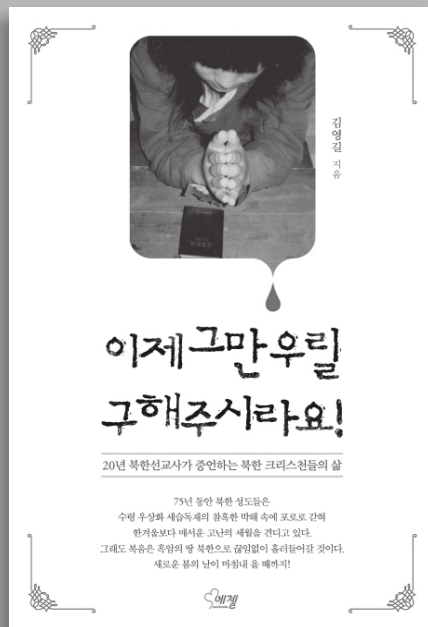
북한은 지난 2009년 IAEA 사찰단을 추방하고 핵 시설에 대한 접근을 거부해온 이후 핵 개발을 지속해왔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 “완전히 추측과 조작으로 가득하다”며 “국제원자력기구는 서방 국가의 정치적 도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김 대사는 “IAEA가 불편 부당성과 객관성이 모자라고, 적대 세력의 곡조에 맞춰 춤추는 꼭두각시로 남아있는 한 절대로 함께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참고: 연합뉴스, 11월 12일) 📰



##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목: 이제 그만 우릴 구해주시라요

저자: 김영길

출판사: 에젤

발행일: 2020년 7월 7일

가격: 16,000원

고난의 행군도 벌써 20여년이 지나고 있다. 국경을 중심으로 한 북한 선교 사역도 동일한 세월동안 이어져왔다, 이제 사역 초기 당시의 상황은 책이나 자료에서 짧게 살펴보는 과거의 기록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지금의 북한 선교 현장의 모습이 형성되기까지는 과거의 역사가 바탕이 되어 있다. 이는 우리가 지금의 현장 상황과 그 맥락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나간 선교의 발자취를 복기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소개할 도서 “이제 그만 우릴 구해주시라요!”는 북중 국경에서 NGO 활동가로서 20여년동안 활동한 저자가 그간의 기록을 정리한 책이다. 사실 북중국경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외국인이 중국에서 이렇게 장기간 추방 등 신변의 문제 없이 사역을 지속하기란 여간 어

려운 일이 아닌데, 아무래도 사역을 하다 보면 극도로 주의를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경로로 중국이나 북한 당국의 이목을 끌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비교적 장기간 현장을 지킨 선교사의 글은 특별하게 다가온다.

이 책의 초반부는 본인이 경험한 북한선교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대외적으로는 NGO 등을 통한 복지사업을 하면서 비밀리에 탈북 난민을 돕는 사역을 해왔다. 저자는 98년도에 국제난민기구의 탈북 난민 구제 사역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2000년대를 거쳐 2010년대까지 탈북자들을 도와온 경험과 기록을 시간 순서를 따라 주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다. 시기별로 당시의 상황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와 그때 만났던 탈북자들과의 에피소드, 그리고 그 속에서 느낀 감동과 감상을 이야

기하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현장 경험이 없다면 이야기하기 힘든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 연구나 논문와는 또 다른, 생생한 상황을 전달해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저자가 묘사하는 북중국경 사역은 2003년 이전까지는 매우 자유로웠다. 중국 당국에서는 특별하게 사역을 단속하지 않았고 강제북송도 그리 마구자비는 아니었다고 한다. 북한도 경제가 완전히 붕괴한 상황에서 탈북자들의 행렬을 막지 못했다. 교회들도 탈북자들을 열심히 구호했다. 조선족 자치주의 교회마다 많은 북한 성도들이 있었고 연결에는 북한사람만 모이는 교회도 두어곳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2002년 말부터 단속이 강화되는 조짐이 있었다. 북한의 국경경비도 강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몇몇 탈북자들이 북경의 외교공관을 통해 중국을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자 중국 당국의 태도가 급변했다. 탈북자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부터의 탈북자 사역은 언더그라운드화 되었다고 저자는 증언한다. 당시 저자는 그 이전부터 양로원 등 복지재단을 운영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현장을 지키며 사역을 비밀리에 지속할 수 있었다고 한다.

저자는 이어서 본인이 만난 탈북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육의 양식과 함께 전달된 생명의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 감격이 담긴 간증, 편지, 사진기록 등을 통해 북한선교의 의미를 조망한다. 많

은 탈북자들이 복음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갔고, 그 중 대부분이 소식을 알 수 없지만 개중에는 순교자의 소식도 왕왕 전해지는데 저자도 동일한 경험을 이야기한다. 북한의 잔혹한 핍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다시금 북한의 영혼들을 잊지 말아야 할 동기를 북돋아준다. 특히 북한 체제의 모순과 북한의 잔혹한 교화소를 비롯한 인권 침해와 심각한 기독교 박해 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북한을 위한 기도를 촉구하고 있다.

책의 중반부부터는 저자의 어린시절서부터 탈북 난민 구제와 북한 선교 사역에 이르기까지의 신앙 여정, 북한의 기독교 역사에 대한 저자 나름의 정리, 그리고 한국 교회를 향한 북한 선교에의 촉구 등으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가치중립적인 역사서를 표방하거나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책은 아니다. 오히려 한 개인의 경험을 회고하는 성격을 띄고 있다. 그런 만큼 저자 개인의 신앙 체험이나 관점이 솔직하게 표현되어 있다. 독자에 따라서는 책에 표현된 주관적인 생각과 관점, 표현이 일부 거슬리거나 동의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책 전반부를 구성하는 과거 북한 사역의 기록들, 그리고 저자가 직접 현장에서 경험한 북한 선교와 북한 사람에 대한 내용은 인상적이다. 글의 문체도 쉽게 쓰여져 있는 만큼 책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독자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북한 선교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책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

1. 한반도 정세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기 미국의 외교정책과는 180도 달라진 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북미 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 변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치적 변화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어떤 경우든 한반도의 평화가 진전을 이루고 북한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기회가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각국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을 포함한 복음화의 역사가 진전되도록 기도합니다.
2. 북한 핵문제 해결과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핵의 폐기를 위한 노력이 그 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러왔습니다. 경제 제재와 외부와의 단절 등 핵무기 보유가 오히려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생명의 길이 아님을 북한이 깨닫길 기도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 북한 핵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한반도의 평화가 증진되고 공의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북한이 하루속히 핵을 포기하고 정상국가화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머지 않은 시기에 복음적 평화통일의 그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3. 겨울을 맞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북한은 경제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태풍과 홍수로 인한 자연 재해 등 다양한 난관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통의 북한 주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겨울은 그 추위가 혹독할 뿐 아니라 미비한 난방 및 주거, 의복 환경 등으로 인해 그 고통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번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일용한 양식이 공급되고 영과 육이 모두 생명을 얻도록 도움의 길이 열리고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본 선교회에서는 겨울을 맞아 어려움에 처한 북녘의 성도들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교회의 현장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십시오.
4. 북한 선교현장과 북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좀처럼 종식되지 않는 가운데 선교사들은 최선을 다해 가능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사역의 문이 더 넓게 열릴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현장사역자들의 강건함과 안전을 위해, 북한 선교를 위해 힘써온 동포 조선족 교회들이 더욱 강하게 세워져 가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 사정과 재해에 더해 당국의 극심한 기독교 박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성도들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본 선교회에서는 내지 성도들을 영육간에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선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5. 북한의 인권 개선과 종교의 자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여전한 기독교 핍박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중단되고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무고한 이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절실한 기도가 요청됩니다. 박해 가운데 고통받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해로 인해 순교하거나 산간오지 추방 및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형제자매들과 그 후손들의 생존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한 현재 북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한국인 억류자(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 그리고 그 외 북에 붙잡혀 있는 조선족 사역자들의 석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6. 대북 라디오 방송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국경통제와 코로나19로 인한 제한 가운데서도 라디오는 복음을 북녘을 향해 전달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생명의 강 방송,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 연초는 개편과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제작, 송출되는 시간입니다. 방송 제작을 위해 수고하는 여러 단체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북한의 성도들과 주민들에게 유익하고 적합한 방송이 제작될 수 있도록 사역자들과 단체들 위에 주님의 지혜와 아이디어가 채워지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방송이 깨끗한 음질로 잘 송출되고 들려져서 매일 밤마다 주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그 땅 가운데 들려지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이러한 라디오 복음 사역이 정치적, 외교적 문제로 인한 중단 없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7. 코로나를 이겨내는 한국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겨울을 맞아 다시금 전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선교현장과 일선 교회가 겪는 어려움이 큼니다. 교회와 선교현장이 이러한 난관에 위축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는 한반도 복음화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어려운 시절이지만 민족 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이루어내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 교회가 신앙의 본질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또한 앞으로 올 새로운 기회를 기대하는 가운데 북한선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mailto: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0년 12월 1일

# 월드와치리스트 2020

World Watch List

크리스찬들을 가장 박해하는 국가 TOP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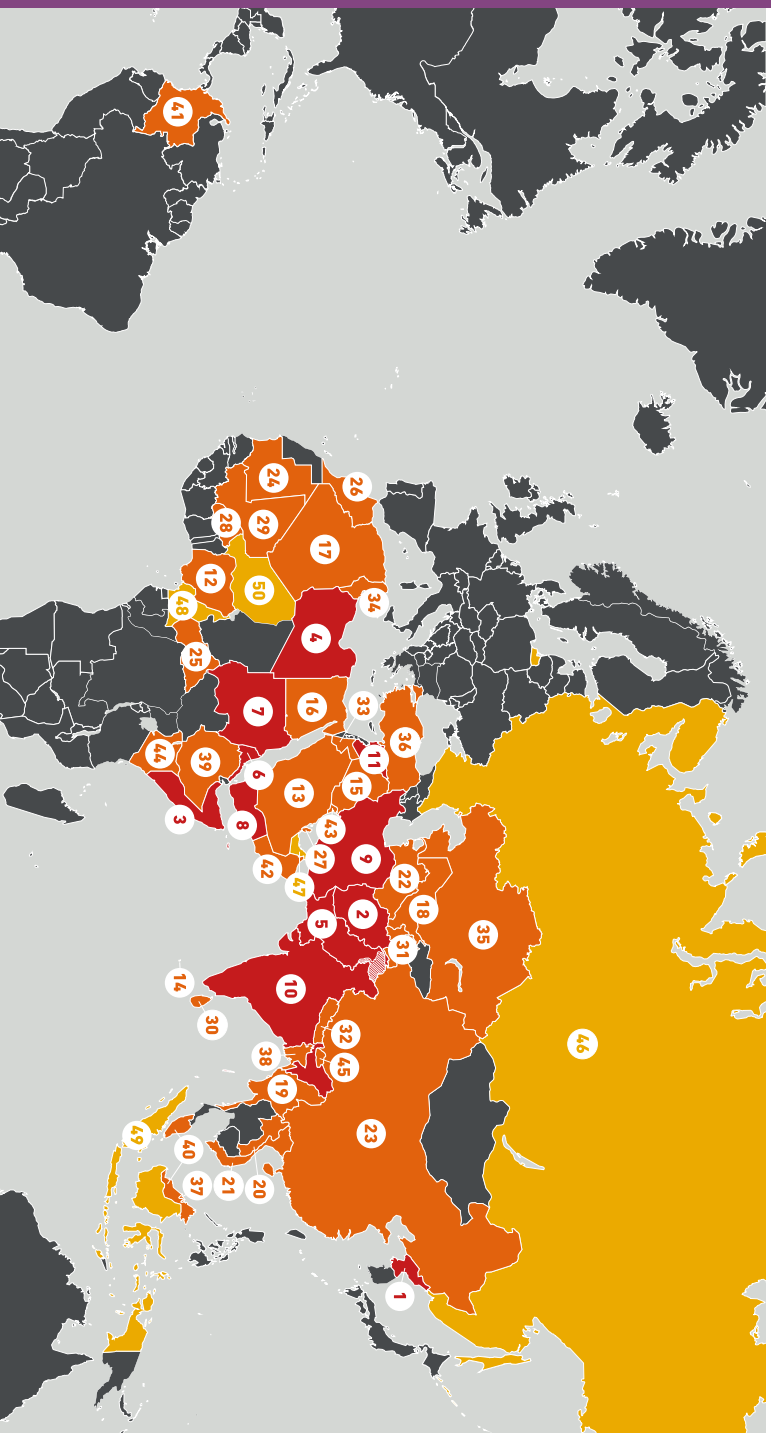
- |              |                |
|--------------|----------------|
| 1 북한         | 28 모로코         |
| 2 아프가니스탄     | 29 카타르         |
| 3 소말리아       | 30 부르키나파소      |
| 4 리비아        | 31 말리          |
| 5 파키스탄       | 32 소말라랜드       |
| 6 에리트레아      | 33 타지키스탄       |
| 7 수단         | 34 니제르         |
| 8 예멘         | 35 오만          |
| 9 이란         | 36 튀니지         |
| 10 인도        | 37 카자흐스탄       |
| 11 시리아       | 38 터키          |
| 12 니제리아      | 39 브라질         |
| 13 사우디아라비아   | 40 방글라데시       |
| 14 몰디브       | 41 에티오피아       |
| 15 이라크       | 42 말레이시아       |
| 16 아랍트       | 43 콜롬비아        |
| 17 알제리       | 44 오만          |
| 18 우즈베키스탄    | 45 쿠웨이트        |
| 19 미얀마       | 46 케냐          |
| 20 라오스       | 47 부탄          |
| 21 베트남       | 48 라시안양        |
| 22 투르크메니스탄   | 49 아랍에미리트(UAE) |
| 23 중국        | 50 카메룬         |
| 24 모리타니아     | 51 인도네시아       |
| 25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52 니제르         |

## 박해수준

● 극심한 수준의 박해 ● 매우 높은 수준의 박해 ● 높은 수준의 박해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는 크리스찬의 박해 가장 심한 50개 국가들의 순위를 정한 목록이고, 동화(同化)와 신변(身邊)을 지키는 것, 오픈도어 문화(문화) 10개 국가의 원인으로 부추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분석하여 만들어낸 것입니다. 각 국가의 박해수준은 오픈도어 이용자는 평가점수 시스템에 의해 기록됩니다. 이것은 복제(複製)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개인과 교회(교회) 사회 생활(生活)을 할 때(때)에 알맞은 대응(對應)을 할 수(수)가 보장(保障)되는 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픈도어의 조사방법과 자료들은 국제종교자유기구(International Institute for Religious Freedom)에 의해 감사를 받습니다. WWI 2020 데이터는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합니다.



크리스찬회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 리베라는 스리랑카 바터클로이 교회에서 2019년 부활주일에 자살폭탄테러범이 시온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다가 성명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가정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라고 크리스찬회는 말합니다.

‘시간이 발생한 다음 날 밤에도 우리는 가정예배를 드렸고 나는 아이들에게 매일 성경을 읽도록 가르쳤어요. 아이들은 정말 강해요. 남편은 정말 사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남편을 잃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것을 사람 하신다 하셨습니다. 나의 깨어진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전세계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회와 똑 같이 고난당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터전에서 살아남은 이들에게 후원물품들을 보냈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는 큰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통해 우리를 후원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는 100%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네요.”



“형제들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팔미암아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기도  
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로마서 15:30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